

# 통합특별시장 후보들, 선관위 등록 앞두고 민심 잡기 주력

민생현장 행보·정책 메시지 경쟁 본격화  
민주 민형배, 서창교차로 첫 출근길 인사  
국힘 이정현 “독점정치 아닌 경쟁 정치를”  
진보 이종욱, 산업지도 대전환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현장 행보와 정책 발표, 정치개혁 메시지 등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11일 광주 서창교차로에서 첫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출근길 인사는 전날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민 후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출근 차량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 측은 첫 출근길 인사 장소로 서창교차로를 선택한 것은 광주와 전남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남과 광주는 행정구역상 나뉘져 있을 뿐 시민의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는 통합으로 전남·광주의 압도적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8시 광주 서창교차로에서 출근길 차량과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 측 제공>

이어 이 관계자는 “선대위 출범으로 전남·광주 대전환을 이끌 조직의 틀을 세웠다”며 “출근길 인사는 시민 속에서 그 비전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의 정치 구조 변화를 강조하며 민주당 중심 정치 지형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이정현 후보는 “정치 독점은 편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지역과 국가를 갉아먹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며 “경쟁이 사라지고 긴장이 무너지면 무능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인물 진입이 차단되고 조직은 활력 대신 관성에 젖는다”며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기업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 유인이 약해지고, 산업 전환이 늦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치 독점을 깨야 전남·광주가 살아난다”며 “정치가 바뀌어야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돌아온다. 정치가 경쟁해야 전남·광주가 하나로 묶인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 산업지도 대전환, 일자리특별시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욱 후보 측 제공>

이 후보는 “정치는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과 견제의 구조여야 한다”며 “광주·전남 정치 독점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리보당 이종욱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 산업지도 대전환, 일자리특별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종욱 후보는 “특별시의 미래는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며 “특별법 제185조에 기초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27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자리특별시 10대 공약으로 첨단반도체 생산단지 구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남 이전, 연간 80만대 규모 친환경 미래자동차 생태계 완성, 광산·함평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첨단3지구·군공항 부지 AI·가성용합산업 메카로 조성, 호남권 첨단바이오헬스 복합단지 2030년 완공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이 키운 인재가 지역을 융성하게 하는 미래첨단산업산·학·관 일체형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노동 존중 좋은 일자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 姜시장 “오월광주, 모두의 축제로” 미래 구상 제시

행불자 규명·헌법전문 수록 등 4대 과제  
“통합특별시서 50주년 민주주의 대축제로”

광주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월, 일상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5월 정례조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남은 숙제와 미래 구상을 제시했다. <사진>

이날 정례조회에는 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5·18 관련 성과를 되돌아보고 5·18을 모두의 축제로 완성하기 위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한 국민 투표가 무산되는 아쉬운 일이 있었음에도 지난 시간은 광주가 민주주의를 이끌고 세계 속에 빛나게 등장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는 오월의 가치를 세계로 넓히고 ‘누군가의 오월’이 아닌 ‘나-들의 오월’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강 시장은 지난 4년 간 5·18이 ‘모두의 오월’로 변화해온 과정을 회상하며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 광주 청년 시인들의 ‘5·18은 누구의 것입니까’ 5분 발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5월18일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제빵·제과 업체들과 함께한 나눔 세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일들은 공직자들과 시민의 힘,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5월을 승화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의 과정이었다”며 “민주광장에서 5·18기념식이 예정돼 있고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합의를 큰 틀에서 이뤄내는

등 5·18의 많은 것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남은 숙제로는 5·18 행방불명자 찾기와 발표 명령자 규명,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전남도청 운영기관 일원화, 5·18 관련자 예우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강 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설립의 뿌리는 옛도청이고 5·18이다. 운영 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오월의 가치를 축소하는 일이자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근거를 흐르는 일”이라며 “옛 전남도청 운영 기관에 대해 지혜를 잘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민주주의 대축제는 가장 ‘정확한 예도’”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18의 숙제들을 해결하고 50주년 오월 민주주의 대축제를 열어 ‘가장 정확한 예도’를 하리라 믿는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나-들의 오월’의 빈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메워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 野 곡성군수 후보 혁신 박응두로 단일화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리턴매치

6·3 지방선거 곡성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박응두(사진)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성로 예비후보가 박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11일 박응두 후보 측에 따르면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통해 두 후보 중 지지율이 높은 박 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했다.

박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비리 의혹과 무능한 군정에 맞서, 무너진 곡성의 자존과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준엄한 선택”이라며 “더 이상 남은 정치와 책임 없는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이며

곡성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곡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정책과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농촌의 지속가능성, 청년과 돌봄, 지역 경제 순환을 중심으로 둔 실질적 정책 집행으로 새로운 곡성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에 따라 곡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혁신당 박응두 후보 간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재정 기자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리턴매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4시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6·3 지방선거 민주당 호남권 공천자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전남·광주·전북 시·도당 위원장, 각 선거별 공천자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공천장 수여, 후보자 소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신고전화 1332  
꼭번없이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26.3.25. (수) ~ 10.31. (토)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 정비센터 관계자 3,000만원